

[번역]

# 사제서품기도<sup>\*1)</sup>



주세페 페라로(Giuseppe Ferraro) S.J.

윤 종 식 옮김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신부]

I. 서품 예식의 구조

- 1. 소개 및 준비 예식
- 2. 중심 예식
- 3. 설명의 예식

II. 사제 서품 기도

- 1. 기도문
- 2. 기도 해설
  - 2.1. 기억(anamnesis)
  - 2.2. 첫 번째 기억: 모세와 원로들, 사목 활동
  - 2.3. 두 번째 기억: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느님께 대한 예배와 성화의 전례적 임무
  - 2.4. 세 번째 기억: 직무 사제직의 삼위일체적 구분과 그리스도론적 기초
    - 2.4.1. 세 위격의 활동
    - 2.4.2. 직무 사제직의 그리스도론적 기초
    - 2.4.3. 사도들과 협력자들: 설교 임무
  - 2.5. 세 개의 기억 종합
  - 2.6. 성령 청원(epiclesis): 거룩함의 영
  - 2.7.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개를 통한 간구(intercessio)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1) 이 글은 GIUSEPPE FERRARO, *La Liturgia dei Sacramenti*, CLV Edizioni Liturgiche, 2018, pp.271~279, 324~349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주세페 페라로는 산 제르마노(베르첼리)에서 1932년 6월 29일에 태어났고, 1962년 7월 8일 예수회 소속 사제로 서품되었다. 갈라라테(바레세)에 있는 교황청립 알로이시아눔 철학과를 마치고, 로마의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박사가 되었다. 갈리아리에 있는 사르데냐 교황청립 신학대학,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 사도들의 모후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성사신학과 삼위일체론, 성경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연구 논문을 남겼으며,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의 자문 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였다. 2013년 9월 13일에 갈라라테에 있는 예수회 공동체에서 선종하였다. 이 번역글은 성품성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사제서품기도의 내용 설명을 통하여 사제직에 대한 성서적, 전례적,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폭넓고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했다.

이 연구에서 먼저 세 가지 서품 예식의 공통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사제 서품 기도를 살펴볼 것이다.

## I. 서품 예식의 구조

서품의 일반적 구조는 세 서품 예식 모두 동일하다. 서품 예식은 서품과 성찬례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유대를 고려하여 복음 선포 후 성찬 전례가 시작되기 전에 행한다.<sup>2)</sup> 그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부분은 소개 및 준비 예식을 포함하고, 중심 부분은 서품 예식이 전개되며, 마지막 부분은 거행된 서품에 대한 설명 예식으로 구성된다.

### 1. 소개 및 준비 예식

세 서품 모두의 소개 및 준비 예식은 동일하다. 수품 대상자 호명과 그의 적격성을 확인해주는 임명장(주교의 경우 사도좌의 임명장을 주교회의 의장이 낭독)을 서품 주례 주교 앞에 제출, 주례 주교의 강론, 주례 주교가 질문하고 뽑힌 이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주교들과 모든 신자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신을 따르며, 교황의 권위 아래 주교단과 일치하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주례 주교가 뽑힌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하고 성인 호칭 기도가 끝나면 마침 기도를 한다. 성인 호칭 기도를 하는 동안에 뽑힌 이는 앞드리고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는다.

2) “서품 예식은 주교가 자기 사제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하나인 제대에서 주재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장엄 미사에서, 되도록이면 주일에 거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의 본디 방식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와 성품이 맺는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 때문이다. 서품 예식과 미사의 긴밀한 관계는 미사 안의 서품 예식 거행, 감사 기도의 고유 부분과 마침 강복, 예식 규정에 따라 선택된 독서나 고유한 서품 예식 미사의 기도문에서 드러난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9-10항).

이러한 준비 예식은 뽑힌 이에 대한 서품 요청과 적격성 확인, 서품 승인의 과정에서 지역 교회 공동체의 참여를 표현한다. 사실 뽑힌 이는 백성의 이름으로 주교에게 제시되며 그의 적성은 뽑힌 이가 성장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표현된 의견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증언된다. 신자들의 동의에 따라 주교는 성품성사의 급에 맞게 선발을 수행한다. 따라서 요청하고 증언하는 공동체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위로부터 직무를 위해 선택하는 공동체의 대표자인 주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 직무, 그것에 뽑힌 이는 공동체와 하느님의 선물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있다. 주교와 뽑힌 이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는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그가 받게 될 직무의 역할 수행을 서약함을 의미한다.

이 대화도 앞에서 언급한 실재, 곧 성품 직무 수여에 공동체의 참여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성품 직무에 뽑힌 이를 위해 성인들을 호명하며 기도로 초대하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종말론적 전례를 거행하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천상 교회의 성사적 행위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준비 예식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공동체가 뽑았으며, 주교가 받아들인 이에게 부여하는 직무의 은사 안에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의 현존에 대한 교리와 실재를 포함하고 표현한다.<sup>3)</sup> 이렇듯 주교, 사제, 부제라는 새로운 직무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는 성품 성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직무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행위이다.

## 2. 중심 예식

중심 예식에서 주교, 사제, 부제 서품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동작과 말로 구성되며 예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주교, 사제, 부제 등 모든 직무 수여에 있어서 동작은 주례 주교가 뽑힌 이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며, 이어서 서품 기도를 바친다.

3) “준비 예식은 서품 예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예식은 수품자나 후보자 소개, 강론, 뽑힌 이의 서약과 성인 호칭 기도, 설명 예식으로 구성된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8항).

서품은 주교의 안수와 기도로 이루어진다. 주교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직무 수행을 위한 성령의 은사를 간청한다. 특히 전례 예식과 동서방 교회의 관습이 밝히는 전승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안수와 서품 기도로 성령의 은총이 내리고 거룩한 인호가 새겨진다는 점과, 그 결과로 주교와 신부와 부제는 서로 고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점이다.<sup>4)</sup>

안수는 서품 등급에 따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교 서품에서 주례 주교가 먼저 안수하고, 공동집전하는 모든 주교가 뽑힌 이에게 차례로 안수한다. 안수를 받은 뽑힌 이의 머리 위에 주례 주교는 『복음집』을 펼치고 두 부제가 양옆에서 그것을 받쳐 든다. 사제 서품에서 주교의 안수 이후에 참석한 모든 사제가 안수한다. 부제 서품에서는 주교만 안수를 한다. 이 모든 것은 침묵 중에 이루어진다. 안수가 끝나고 본연의 서품 기도를 바친다. 주교 서품의 경우, 축성 기도에서 성사적 행위의 가치를 위한 본질과 같은 성령을 청하는 중심 부분을 모든 서품 주교가 함께 바친다.<sup>5)</sup> 이렇게 주교 서품에서 성사의 참되고 본연의 공동집전을 보여주며, 이는 라틴 예식에서 온전한 공동집전의 유일한 경우이고 또한 성찬례의 공동집전도 마찬가지다.<sup>6)</sup> 사제나 부제 서품의 경우에는 주교 혼자 서품 기도를 바친다.

단순하고 장엄한 이 중심 예식은 회중과 봉사자, 뽑힌 이의 경건

4)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6항.

5) “서품 주례 주교는 함께 집전하는 모든 주교의 이름으로 서품 기도를 바친다. 그러나 서품 예식의 본질과 관계되는 기도 부분은 뽑힌 이에게 안수를 한 모든 주교가 서품 주례 주교와 함께 바친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25항.)

6)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주교 서품을 하는 주례 주교는 서품 예식 때에 적어도 두 명의 주교를 동반해야 한다. 서품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교는 후보자에게 안수를 하고 정해진 서품 기도를 함께 바치며 평화의 인사를 함으로써, 주교로 뽑힌 이를 대사제 직무에 올리는 데 함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주교 예식이든 주교단의 연대성을 드러낸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6항). Cf. G. FERRARO, “Azioni liturgiche concelebtrate nella chiesa latina”, in *La Civiltà Cattolica* 140 IV(1989) 253-267; IDEM, “Il magistero liturgico di Pio XII”, in *La Civiltà Cattolica* 145 III(1994) 238-251; IDEM, “Esperienza sacramentale della collegialità episcopale nell’episcopato di Paolo VI”, in *La Civiltà Cattolica* 127 IV(1976) 532-546.

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주의와 깊은 내적 집중 안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이는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에 비유할 수 있다. 기도가 끝날 때 모든 참석자는 서품된 이의 선택, 공동 책임, 연대를 의미하는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참여를 표현한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은 하느님 아버지의 승인과 교회의 전례에서 실현 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중심 예식에서 성취되는 성품성사는 예식의 동작과 말로 강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회중은 합당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일치하여 성취된 교회 성장에 참여하여 영적 결실을 맺도록 이 행위에 최대한 분명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사전에 동작과 말의 의미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품 수여에서 행하는 안수에 대한 성서적 배경은 뽑힌 이의 내적 성화, 성사적인 인호, 그가 받는 품의 적절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한 성령의 은사 전달을 의미한다. 성화, 성격, 자격은 서품된 이가 최고의 증개자이며 유일한 사제인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성사적 표징이 되게 한다.

주교 서품에서 중심은 안수와 서품 기도, 그리고 이것과 동반하는 뽑힌 이의 머리에 복음서를 얹는 동작이다. 이 행동은 시리아 가발라의 주교 세베리아노의 저서에서 그 고대성이 증언되며 그 가치가 잘 설명되어 있다.

서품 중에 복음서를 뽑힌 이의 머리에 얹는 동작은 복음의 참된 왕관을 받는 것을, 그가 모든 이의 머리이지만 또한 복음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그는 모든 이에게 명령하지만 그 자신은 복음의 계명에 지배됨을,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입법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제정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대사제 위에 복음서를 얹는 것은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다.<sup>7)</sup>

7) 이 본문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작품에서 보고된다. INCERTI, *Homilia de legislatore*, n.4, PG 56, p.404. Cf. SEVERIANI Gabalensis Episcopi, *Oratio in Dei Apparitionem*, PG 65, pp.15-26. 이 본문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cf. J. LECUYER, “Note sur la liturgie du sacre des évêques”, in *Ephemerides Liturgicae* 66(1952) 369-373.

이 동작은 복음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교들의 순명을 의미한다. 이 진리의 기초는 바오로가 에페소 원로들에게 한 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사도 20,32). “은총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은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사도는 원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라고 말했다. 바오로는 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도록 주교에게 맡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반면에 이 두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성령에 의해 임명된 주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발전과 증진, 계시를 통한 교회의 건설에 힘쓴다.

따라서 주교를 임명할 때 안수는 성령을, 복음서를 머리에 얹음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주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품되었고 그의 태도는 성령에 종속되어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명되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바오로 성인이 선포하고 복음서를 얹는 동작에서 다루어진 이 교리는 또한 교회의 교도권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계시 현장에서 확인된다.

교도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한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해석한다. 그리고 교도권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이 유일한 신앙의 유산에서 얻어 낸다.<sup>8)</sup>

8) 「계시현장」, 10항.

주교 서품에서 뽑힌 이의 머리에 행하는 안수와 복음서 엮음은 세세대대로 전해진 동작들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주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준다. 주교들이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음을 가르쳐준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은 지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성화와 예배, 가르침과 다스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를 이끌어낸다.

### 3. 설명의 예식

중심 예식을 행하고, 뽑힌 이는 주교로, 사제로, 부제로 서품되었다고 한다. 이제 전례는 이 성취된 이 실재와 수여되고 받은 성품의 품격을 다른 동작들로 나타낸다.<sup>9)</sup> 새 주교는 머리에 축성 성유 도유와 복음집을, 오른손 약지에 주교 반지를, 머리에 주교관을, 목자 지팡이를 받는다. 새로 서품받은 주교는 공동 집전하는 주교들 중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초대된다. 서품 예식을 새 주교의 관할 교구 성당에서 거행했다면, 주례 주교는 새 주교를 주교좌에 앉게 하고, 그는 새 주교의 오른쪽에 앉는다. 끝으로 새 주교는 주교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표시로 참석한 모든 주교에게 인사를 받으며 포옹한다.

새 사제들은 사제의 전례복인 영대와 제의를 입고, 주교는 그들의 두 손에 성유를 바르고 빵이 있는 성반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을 주고 그들과 포옹한다. 주교의 포옹에 이어 새 사제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참석한 모든 사제와의 포옹이 이어진다. 새 부제들은 부제의 전례복인 부제 영대와 달마티카를 입는다. 주교는 그들에게 복음집을 건네면서 그에 따른 형식문을 말한다. 이어서 새 부제들을 환영하는 부제들의 포옹한다.

이 모든 동작은 성사에서 일어난 일, 서품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 직분에 맞는 전례

9) “설명 예식은 안수와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하여 부여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성품의 종류에 알맞게 밝혀 준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8항).

복을 입는 것과 도구를 수여하는 것이다. 각자는 직분과 역할에 맞는 전례복을 입는다. 도유와 복음서 수여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주교로 서품된 사람은 머리에 도유를 받고, 사제로 서품된 사람은 손에 도유를 받는다. 성경에서 기름의 상징은 다양하다. 기쁨, 영양분, 약, 빛, 무엇보다도 축성의 표지이다. 성품 성사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표현한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도유를 받고 축성된 대사제가 된다. 이렇게 주교와 사제는 안수를 통하여 주님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로 주님과 닮게 된 그들은 또한 예식에서 보이는 외적 도유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내적 도유를 받는다. 도유에 수반되는 형식문은 이 교리를 표현한다.<sup>10)</sup> 다른 설명적인 동작은 주교와 부제들에게 복음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성품 직무들에서 첫 자리인 주교는 복음의 선포자이다. 마지막으로 새 주교는 주교들로부터, 새 사제는 사제들로부터, 새 부제는 부제들로부터 환영의 포옹을 받는다.<sup>11)</sup>

이렇게 서품 예식은 끝난다. 주교직과 사제직에 서품된 이들이 공동으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성찬례 거행이 계속되고,<sup>12)</sup> 서품된 부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성체를 분배함으로써 직무 사제직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공한다.

10) 새 주교의 머리에 축성 성유를 발라 주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대 사제직에 참여하게 하신 하느님께서 몸소 신비의 기름을 발라 주시고 영적인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49항, 85항).

11) Cf. G. FERRARO, *Ravviva il dono. Catechesi liturgica sul sacerdozio ministeriale*, Cinisello Balsamo, 1986, pp.15~23.

12) 주교 서품에 관하여 다음 참조. «서품 예식이 새로 서품된 교구장 주교의 관할 교구에서 거행될 때에는, 공동으로 집전하는 성찬 전례를 그가 주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27항).



## II. 사제 서품 기도

### 1. 기도문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  
 만물이 자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  
 일찍이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어  
 백성을 다스리고 성화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여러 직위의 보조자를 뽑으시어  
 신비로이 성직 체계를 마련하셨나이다.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칠십 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시어  
 사제 법규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성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요 사절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정해 주시어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종들을 협력자로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이 종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이 종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 종들을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 종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의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  
 주님,  
 이 종들을 주교와 결합시켜 주시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sup>13)</sup>

## 2. 기도 해설

삼위일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구분될 수 있다.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세 부분의 발전을 형성하는 활동에 속한다. 하느님 아버지는 기도의 첫 부분에서 사제직 설립에 관한 세

13)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31항, 90-92쪽.

가지 기억을 통해 드러난다. 중심 부분에서 성령은 후보자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이 받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후보자들에게 요청된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후보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때 성부와 함께 활동하여 중개자로 불린다.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일반적인 삼위일체적 구조에 더하여 세 위격은 교역자로 뽑힌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언급된다.

### 2.1. 기억(anamnesis)

기록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서는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  
만물이 자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주님께서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  
일찍이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어  
백성을 다스리고 성화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여러 직위의 보조자를 뽑으시어  
신비로이 성직 체계를 마련하셨나이다.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칠십 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시어  
사제 법규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성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서문을 구성하는 이 부분에서 하느님 아버지는 두 호칭과 함께 언급된다.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는 분”(humanæ dignitatis auctor)

과 “모든 은총을 내리시는 분배자”(distributor omnium gratiarum).<sup>14)</sup> 이 호칭들은 바로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sup>15)</sup>으로 시작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 선언」과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11,4-6). 여기서 하느님은 은사와 직분의 창시자로 제시된다. 이어지는 기도는 “주님께서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이다. 세 위격이 다 언급된다. 아버지는 최고의 연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분, 성령은 거룩한 능력을 지닌 활동가로 표현된다. 이 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에게 영감을 받았다. 「교회 헌장」에서 “직무 사제는 참으로 그가 지닌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린다”(10항)고 한다. 「사제 생활 교령」에서는 “성품성사로 사제들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몸 전체, 곧 교회를 확장하고 건설하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된다”(12항)라고 하며, 「교회 헌장」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직무는 이미 옛날부터 주교, 신부, 부제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품계로 수행하고 있다”(28항)라며 교회 전통에 따른 직무의 여러 품계를 밝힌다. 최근에 작성된 이 문장들을 통해 사제의 방향성이 기도의 서문에서 주어지고 동시에 직무 자체의 기원과 삼위일체적 성격이 강조된다.

기도는 두 위격과 연결된 구약의 이중적 신성한 제도를 상기시키면서 계속된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언급은 예식서 최신판의 기도에 삽입된 부분이다. 모세와 아론은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 모세는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를, 아론은 전례에서 사제 임무를 수행했

14) 한국어본에는 그냥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와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라는 동사로 그분의 행위를 중심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라틴어본은 호칭으로 표현했다.

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221쪽.

다. 그들의 협력자들은 하위 그룹에서 동일한 역할을 위임받았다. 이 사제 서품 기도의 서문은 “임금과 사제들을 세우셨다”고 말하는 주교 서품 기도의 서문과 비슷하다.

이제 성직 체계와 관련하여 구원의 역사에서 행해진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언급인 ‘기억’이 뒤따른다.

## 2.2. 첫 번째 기억: 모세와 원로들, 사목 활동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칠십 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모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어려움을 하느님께 알리자 하느님은 칠십 인의 원로들을 택하여 돕게 하였고, 모세는 그 명령을 이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일흔 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일흔 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시어 그 일흔 명의 원로들에게 내려 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민수 11,16~17. 24~25).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된 칠십 원로들은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동일한 영의 내림을 받고, 모세의 다스리는 임무에 참여한다. 원로들에게 성령을 내려주는 사건은 만남의 천막, 곧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은 신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을 알아볼 수 있다. 사건의 중심 요소는 모세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원로들에게 주는 은사이다. 이 영은 칠십 인의 원로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예언할 수 있게 하지만 잠시 동안만 가능하게 했다. 그 은사는 천막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며 백성의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이고 장엄한 방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참여하는 칠십 원로를 구성한다. 성경 본문에 포함된 요소 중 서품 기도는 천막에서의 일과 원로들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요약된 다른 요소를 전해준다. 원로들에게 모세 안에 있는 영을 전달함으로써 역사하는 분은 하느님이다. 그들에게 주신 영의 효력은 모세를 돕는 칠십 인의 원로들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다. 이러한 성경 자료들에 대한 해석이 있다. 하느님의 대리인인 모세와 원로들은 같은 은사를 받았다. 백성을 다스리는 같은 목적과 효과를 위해 모세 안에서 충만한 성령이 원로들에게도 내려왔다.

사제 서품의 전례 거행에서 선포되는 이 기억은 성사에서 실현되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제공한다. 모세는 주교의 형상이고, 원로는 사제들의 형상이다. 원로들은 주교에게 주어진 동일한 영의 통교와 참여를 받는다. 성령은 그들이 협력과 종속으로 교회에서 사목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사제의 역할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에게 주어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을 수행한다.<sup>16)</sup> 이 기억은 서품 기도의 세 번째 부분에서 신자들에 대한 사목 활동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sup>17)</sup> 예식서에 제시된 강론의 결론은 예식에서 성령의 현존을 언급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임무를 상기시킨다. “여러분은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주교와 결합하여 그 지도에 따라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일치시키며, 그리스도를

16) 사제의 이러한 측면은 주교 서품 기도에서 표현된 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주교 서품 기도에서 믿는 이들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청한다.

17)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31항, 92쪽.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이끌어야 합니다”<sup>18)</sup> 교회는 이 직무에 적합한 성령의 은사를 성령 청원에서 효과적으로 요청한다.

### 2.3. 두 번째 기억: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느님께 대한 예배와 성화의 전례적 임무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시어  
사제 법규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성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느님의 명령과 사제의 역할 수행에 따라 모세가 수행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제직에로의 부르심과 축성을 떠오르게 한다. 모세에 대한 하느님의 명령은 탈출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다. 성별(聖別) 이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기 9장에 설명된 대로 사제 직분을 수행한다.<sup>19)</sup> 성별 예식은 몸을 물로 씻음, 사제복 착의, 성별 기름 도유, 속죄 제물 봉헌, 번제물, 사제직 설정을 위한 평화로운 희생으로 구성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 직분에 들어가는 것은 제물 봉헌과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남으로써 확인된 백성에 대한 마지막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신현(神顯)은 성별 예식과 사제직 실행을 마무리한다. 성별식에서 아론만이 대사제 직분을 받는다. 그의 아들들은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함께 흠숭하는 하느님에게 속한 사제가 된다.

사제 서품 기도는 성서 본문에 포함된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한 교역자가 모세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제 직분에 온전히 참여하게 한 분은 하느님 자신이다. 그 효과는 희생 제사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거룩한 예배와 백성의 성화를 실현하는 이 제사는 성찬례와 성사들에서 절정에 이르는 새 계약에 대한 예

18)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23항, 78쪽.

19) Cf. P. HEINISCH, *Das Buch Exodus*, Bonn, 1934, pp.219-233. K. ELLINGER, *Leviticus*, Tübingen, 1966, pp.104-120.

배를 예표한다.

인용된 성경 구절들의 해석은 첫 번째 기억의 해석과 유사하다. 1) 같은 행위의 주제: 하느님에 의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되었다. 2) 같은 은사: 아론에게 준 충만한 사제 직분에 그의 아들들이 참여하게 하는 은사를 주었다. 3) 같은 목적과 효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백성을 성화한다.

사제 서품의 전례 거행에서 선포되는 이 기억은 성품 성사에서 실행되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제공한다. 아론은 주교의 표상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사제들의 표상이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제직을 수여받고 참여한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주교에게 순종하여 성찬례와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사제의 역할은 동일한 직무 사제직으로 인해 교회의 성사와 거룩한 예배를 집전하는 주교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서품 기도의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사제들이 수행하는 성사적 행위에 대한 설명은 기억에 부합한다.

이 종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의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sup>20)</sup>

여기서 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설명한다. 새로 서품된 각 사제의 손에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은 성화와 예배를 위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한다. “성부에게서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으로 권능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어 그대가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sup>21)</sup> 성령 청원에서 요청되고 부여된 성

20)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31항, 91쪽.

21)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33항, 92쪽.



령의 은사는 이 직무를 가능하게 한다.

## 2.4. 세 번째 기억: 직무 사제직의 삼위일체적 구분과 그리스도론적 기초

### 2.4.1. 세 위격의 활동

거룩하신 아버지,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요 사절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정해 주시어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 부분은 옛 예식서와 비교해서 볼 때 개혁된 로마 예식(Pontificale Romanum Renovatum)의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요소들은 삼위일체적 구분, 직무 사제직의 그리스도론 기초,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의 영감이다.

삼위일체적 부분은 기도에서 나타난다. “거룩하신 아버지, ...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세 위격의 관계는 파견의 관점에서 아버지는 보내신 분으로, 아들은 보냄을 받은 분으로 설정된다. 희생 제사의 관점에서 아들은 스스로를 제물로 봉헌하는 분으로, 아버지는 그 제물을 바치는 분으로 구성된다. 성자의 희생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은 성령이고, 성령에 의해 성자는 생기를 얻는 분이다. 세 위격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실현되고 드러난다. 삼위일체적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한 교리의 토대에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사도와 제자의 직무 사제직의 기초가 된다.

#### 2.4.2. 직무 사제직의 그리스도론적 기초

직무 사제직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두 가지 사항인, 하나님의 아들의 보냄과 그의 희생으로 분명해진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냄은 신약 전체에 흐르는 계시이다. 기도는 특별히 다음의 성경 구절을 상기시킨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요한 10,36). 예수의 사제적 기도에서 다시 취해진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요한 17,18).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며 제자들을 파견한다. 이 보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을 의미하며 강생의 신비를 말한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 사실, 강생을 통해 그리스도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사제이며, 신성과 인성을 자신의 신적 위격 안에서 통합하는 한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1티모 2,5)이다. 그 자신이 신이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히브 3,1)이라고 칭한다. ‘사도’(apostolus)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다는 뜻이고 ‘대사제’(pontifex)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개자를 의미한다.

서품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히브리서의 본문과 함께 선포된다.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히브 9,14). 서품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제물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여 그분을 기쁘게 했다는 구약의 제사를 예수의 희생 제사의 예표로 언급한다. 예수의 사제적 희생제사에서 그는 자신을 봉헌하는 사제와 봉헌되는 제물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불인 성령은 신성한 능력으로 희생제물을 변화시켜 제물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기쁘게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제적 봉헌의 내적 역동성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성령과 그리스도는 희생의 성취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는 사제직의 실현에 있어서 연결된다.<sup>22)</sup>

### 2.4.3. 사도들과 협력자들: 설교 임무

사도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의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서품 기도는 예수께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도들을 그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예수는 아버지께 말한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18). 파스카 저녁에 발현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그는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7,19).

기도에서 연상되는 성경 구절들에서 나타난 주체와 주제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사도들과 그들의 협력자들, 마지막으로 은사의 주제인 파견과 성화이다. 서품 기도는 인용된 성경 구절을 사제적 의미로 해석한다. 예수의 세상으로의 파견이 강생이었듯이, 거기서 그의 사제직의 존재론적 성격이 형성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자기 희생 안에서 그의 사제직 실행을 통해 실존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사도들에게 있어서 파견과 거룩함은 그들을 예수의 품위와 사제의 역할에 참여하게 한다. 사도들의 협력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도 이 품위에 부름을 받았다. 트렌토 공의회는 사제직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친다.

제사와 사제직은 하느님의 안배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둘은 모든 법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 가톨릭교회는 신약 안에서 주님의 설정에 따라서 미사성제의 거룩한 희생을 가시적인 제사로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옛(사제직)이 넘어와 있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새로운 사제직이 존재한다고 고백해야 한다(참조: 히브 7,12). 이 사제직이 주님 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신 분에 의해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 사제

22) Cf. A. VANHOYE, *L'azione dello Spirito Santo nella passione di Cristo secondo l'Epistola agli Ebrei*, in: *Credo in Spiritum Sanctum*, Atti del Congresso internazionale di pneumatologia, volume I, Città del Vaticano, 1983, pp.762~765.

직의 계승자들에게 사제직 안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권한, 죄를 용서하고 단속하는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성경들은 보여주고 있으며, 가톨릭교회의 전승도 이를 언제나 가르쳐왔다.<sup>23)</sup>

전 세계에 구원 사업을 선포하고 수행하는 임무를 표현하는 서품 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의 내용을 채택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파견하시어[...]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 활동을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다”(6항). 이 공의회 문헌 내용에 대한 암시와 함께 서품 기도가 설교와 성사에 대한 직무적 역할, 사도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에게 참여로 맡겨진 역할을 나타낸다. 주교단이 사도단을 계승하고, 사제들은 사도들의 협력자들과 비슷하다. 서품 기도는 설교를 통한 복음화 권한과 성찬례를 비롯한 성사들에 관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주교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으로 협력자인 사제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세 번째 기억은 성사적 역할과 연결하여 설교 역할을 선언한다. 이 직무는 성령의 은사로 가능하며, 기억에서 제시된 설교의 성취가 서술된 서품 기도의 세 번째 부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중들을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sup>24)</sup> 성령은 성령 청원에서 요청되고 수여된다.

23) CONCILIUM TRIDENTINUM, Sessio XXIII, *Vera et catholica doctrina de sacramento ordinis ad condemnandos errores nostri temporis, caput I*, in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Bologna, 1991, p.742;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출판사, 2006, 742쪽.

24)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31항, 91쪽.

## 2.5. 세 개의 기억 종합

첫 번째 기억	두 번째 기억	세 번째 기억
(하느님 아버지는) 칠십 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하느님 아버지)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시어	(하느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요 사절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사제 법규에 따라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표인 성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정해 주시어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위 표에 배치된 세 개의 기억은 그것들의 병행과 교리를 보여준다. 그들은 사제직의 세 가지 직무를 말한다. 사목 활동, 예배와 성화, 설교의 직무, 그리고 주교와 사제라는 두 등급을 알려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억에서 주체는 하느님 아버지이고, 세 번째 기억에서는 성부와 성자이다. 세 가지 임무 모두에 대해 성령 청원에서 요청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그것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첫 번째 기억에서 주체는 모세와 칠십 원로이고, 두 번째 기억에서는 사제 성별이고, 세 번째 기억에서는 파견이다. 그 효과는 첫 번째 기억에서는 다스릴 자격, 두 번째 기억에서는 예배드릴 자격, 세 번째는 구원과 그 실현에 대한 설교에 대한 자격이다. 세 개의 기억에서 주제들 중의 첫 번째는 모세, 아론, 사도들이 받은 완전하고 최고인 품계의 은사와 자격, 그리고 칠십 원로, 아론의 아들들, 사도들의 동반자들이 참여한 하위 품계의 은사와 자격이다.

이어지는 “주님,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종들을 협력자로 주소서”라는 기도 부분은 현재의 전례 거행에서의 실현을 표현한다. 곧 기억에 의해 불러 일으킨 것은 이제 성령 청원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실현된다.

## 2.6. 성령 청원(epiclesis): 거룩함의 영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이 종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이 종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중심에 위치한 성령 청원은 사제직을 제정한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에 대한 기억, 뽑힌 이들에 대한 성령 청원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한 간구로 구성된 서품 기도의 삼위일체적 구조의 핵심이다. 성령 청원은 서품의 유효성을 위해 필요한 기도이다.<sup>25)</sup>

성령 청원은 사제직에 서품된 부제들의 마음 안에 거룩함의 성령의 은사가 새롭게 되살아나도록 성부로부터 청한다. 서품 기도는 뽑힌 이들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네 가지 청원을 한다.

- 사제의 품위(사제에 속하는 품위)
- 성령의 은사 갱신
- 사제 직무
- 신자들을 위한 덕행의 삶의 모범

거룩함의 성령에 대한 청원은 시편 51편에서 세 종류의 성령을

25) “사제 서품의 질료 또한 축성 기도 전에 주교가 침묵 가운데 각 수품자에게 하는 안수이다. 형상은 축성 기도이며, 그 가운데 다음의 기도는 서품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이 종(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이 종(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PAULUS PP.VI, “Constitutio Apostolica Pontificalis romani” in *Enchiridion Vaticanum* 3, Bologna 1980, n.470). *AAS* 60 [1968] 372-373: 바오로 6세, “부제와 사제와 주교의 새 서품 예식을 승인하는 교황령 ‘로마 주교 예식서의 개정’”,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5쪽).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문헌에서 볼 수 있다.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성품 성사(Sacramentum ordinis)”, *AAS* 40(1948) 7.

청하는 부분의 두 구절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12나: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13나: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음과 같은 기도가 되었다. “이 종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Innova in visceribus eorum Spiritum).

주교 서품 기도 해설에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사제 서품의 주제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된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스며드는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법에 대한 충실함을 방해하는 모든 번덕과 불안정으로부터 구하는 확고한 힘과 능력을 전해준다. 그것은 사람을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하느님과의 친교를 보장한다.

새 계약을 특징짓는 하느님의 영은 사제 서품을 통해 수여되고 받아들여지며, 성품의 성사적 거룩함, 사제직의 품위, 곧 사제단에 들어가고 사제의 범주에 속하는 품위를 받으며, 사제직을 수여한다. 최고 사제직, 곧 주교의 직무 사제직의 충만함과 관련하여 두 번째 사제직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사제 직무,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온전한 생활 방식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힘을 전해준다.

청해진 거룩함의 영의 은사는 성화와 성사적 은총을 증가시킨다. 성인 호칭 기도를 마치는 기도에서 사실 서품은 성령의 축복으로 묘사된다. “주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종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고 사제직의 은총과 능력을 부여 주소서.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축성할 이 부제들을 봉헌하오니 너그러운 은혜를 길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sup>26)</sup> 그런 다음 거룩함의 성령의 은사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억에서 나타난 사제직의 공식적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에서는 그것의 실현의 관점에서 다시 상기시킨다. 성령 청원을 구성하는 첫 번째와 세

26)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128항, 85쪽.

번째 간청은 두 번째 사제직의 품위를 청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뽑힌 사제들, 원로들, 그들에게 두 번째 사제직을 부여하고 그들을 신약의 참된 사제 직무자, 최고 사제인 주교의 협력자들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요청되고 주어진다. 그들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목활동을 맡아 성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을 신앙의 성사들로 거룩하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 교육을 한다. 사제인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성령은 사제들에게 직무 권한을 주고, 그들이 주교와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 일상 활동에서 그 권한을 실행하도록 한다. 그들의 직무 어려움과 인간적 부족함의 체험에서 사제들은 자신과 인간적 수단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의 신뢰와 직무의 효율성에 대해 보증해주는 성령을 더 신뢰할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네 번째 청원에 표현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들의 모범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생활 방식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사제 서품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고 현존하기를 청원하는 의미이다.

## 2.7.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한 간구(intersessio)

간구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제들의 임무를 다시 알려준다. 곧, 기도의 이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교리를 상기시킨다. 사제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역할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p>이 종들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p>	<p>이 종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의 총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p>	<p>이 종들을 주교와 결합시켜 주시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p>
---	---	--



사제의 임무를 나타내는 이 세 부분을 통해 사제 직무의 사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선포, 진리의 체계적인 가르침, 계명 실천의 권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설교의 권한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복음 말씀의 목적인 온 세상에 복음선포에 대한 언급은 공관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상기시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15-16).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루카 24,47).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도 언급된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두 번째 부분은 성사 집행의 역할을 설명하고, 사제가 거행할 권한이 있는 개별 성사를 나열한다.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는 “새로 워지도록 물로 씻어”(티토 3,5)를 연상시키고, 성체성사는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히브 13,10 참조)라고 표현하며, 고해성사는 “죄인은 화해하고”(1코린 15,18)라 하였고,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는 야고보 서간의 말씀을 따라 “병자는 고통을 덜게”로 명시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세 번째 부분은 시간 전례의 사제적 임무를 가리킨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목 활동의 권한 행사가 암시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임무인 설교, 성사 집행,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목

에 대해 표현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교에 대한 사제의 결합과 종속이 항상 반복됨을 다음의 표현들로 확인된다: “이 종들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 “이 종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의 충실한 관리자”, “이 종들을 주교와 결합시켜”.

마지막에는 사제의 직무 권한의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의 모임,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 형성, 그리고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교회 헌장, 2항) 교회를 말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의 표현을 암시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종말론적 성격은 시선을 끈다. 서품 기도의 세 번째 부분에서 다른 이 세 가지는 성령 청원에서 각 역할의 효과를 청하고 기원하면서 다시 등장하고, 그것들의 종합에서 동일한 교리를 보여준다. 직무 사제직에는 주교와 사제의 두 등급이 있다. 주교와 사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성사들을 집전하며, 그 가운데 사제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설교를 믿고 성사들의 거룩함을 받아들인 공동체에 대한 사목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되게 하는 사제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와 같이 묘사된 사도적 열매는 모든 교회의 영혼으로 서품식에서 청원하여 받은 성령의 활동이다.

사제 서품 기도에서 사제 차원의 성품 성사의 구조와 본질은 삼위일체적이다. 기도 형식의 일반적인 삼위일체적 구분에 더하여, 사실 우리의 구원과 직무의 제도와 수행과 관련하여 삼위의 관계가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사제의 삼위일체적 정체성이 강하게 강조된다.

직무의 그리스도론적 기초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강한 삼위일체적 특성 중 하나인 세 번째 기억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한 교리가 제안되며, 이는 하느님 아들의 강생과 희생으로 구성되며, 이 실체로부터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 그리고 사제들의 사명과 사제적 성화가 유래한다. 삼위일체의 활동인 사제직의 탄생과 그 직무적 역할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새로운 계약의 대사제인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사제들이 거행할 권한이 있는 성사인 세례, 성체, 고해, 병자성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있다. 오늘날 사제들에게 위임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견진성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성사의 본래 집전자는 주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또한 고대 율법의 사제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주어진 실재의 예표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직무 사제직의 역할은 사목, 예배, 성화, 설교로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임무는 사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초월적으로 통합된 세 위격의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주교와 사제의 사제직에 참여하여 그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러한 역할은 주교에 의해 수행되며, 주교의 예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주교의 전임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다.

주교 직무에 종속된 사제 직무는 성사적 본질을 띠고 있다. 사제들이 사목자, 스승, 성화자인 대사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성령의 은사는 주교가 집전하는 성품성사에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성령의 은사는 취소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영원하며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사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 곧 사목, 설교, 성화는 주교에 의존하여, 곧 주교와의 사제의 교계적 친교에서, 그리고 교회 조직의 합법적인 형태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결정을 통해 구현되는 친교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주교들이 그들 안에서 주교직의 일치와 주교단을 형성하듯이, 사제들은 성품성사와 직무 사제직으로 인하여 교회의 건설과 성장을 위해 주교의 사제 직무에 본성상 연결된 사제직의 일치를 형성한다.

## 국문초록

이 글은 예수회 사제인 주세페 페라로의 저서 『성사들의 전례』(*La Liturgia dei Sacramenti*)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성사론의 대가, 특히 성품성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다.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2021년~2023년)에서 신학적 요소들로 제시한 것이 친교의 교회론, 섬김의 권위인 봉사직무, 신자들의 신앙감각, 상호경청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가 과연 현대에서만 요청되고 있는 것들인가? 또한 교회 문헌과 전례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실행한 전례개혁에 따른 예식들에서 펼쳐진 전례문들에서는 벌써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세페 페라로의 성품성사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의 전개는 우선, 성품성사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서품 예식의 구조”를 살펴본다. 여기서 서품 예식에서 주교, 사제, 부제품은 동일한 구조, 곧 소개 및 준비예식, 중심 예식, 설명 예식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에 핵심인 중심 예식은 안수와 서품 기도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사제서품기도”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룬다. 사제 서품 기도는 다른 서품 기도에서처럼 기억(*anamneis*), 성령청원(*epiclesis*), 간구(*intercessio*)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억은 모세와 원로들, 아론과 그 아들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활동을 상기시킨다. 성령청원에서 언급되는 “기록함의 영”은 시편 51장 12~13절을 떠올리게 하며, 사제직에서 받는 성령의 은사가 성화와 성사적 은총을 깨닫게 한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한 간구는 사제가 해야 할 직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청한다. 서품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적 바탕이 깔려있다.

사제서품기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

령 안에서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사제들이 서품 때 받은 성령  
께 의지하여 영적, 사목적, 전례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희망해본다.

▶ 주제어: 성품성사, 사제, 서품기도, 사제직, 성령청원